

쓰레기봉투 제조 모든 업체 가입 유도로 품질안정 이룰 터 중기특성 갖춘 모범경영으로 내실 갖춰

정무신 / 쓰레기봉투 PL표시승인업체협의회회장

품 질 우선시대,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제조업체들도 보다 양질의 제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쓰레기봉투 업계도 얼마 전부터 프라스틱조합내 시험원에서 PL마크를 부여하여 그 품질을 인정해 주고있다. 점차 그 업체수가 많아지고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4월3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회원사내 PL승인을 받은 쓰레기봉투 업체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주목을 받았다.

PL마크는 KS보다도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전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협의체가 발족하게 된 것은 그동안 쓰레기봉투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많아 처음부터 많은 신경전을 벌인 예민한 제품으로 품질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앞으로 업체간 문제점 해결에 주력할 것이며 제조업체 스스로 제품을 수거해 자체 시험을 정기적으로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내 200여개 쓰레기봉



▲ 정무신 PL표시승인업체협의회 회장

투 제조업체가 있는데 PL마크를 승인받은 업체만 75개업체며 9월까지 70%가 가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히는 정무신 회장은 쓰레기백·쇼핑백 제조업체인 (주)제임스케미칼 대표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앞으로 우수한 규격 제품생산 보급을 위한 적정 원자재, 공동구매, 최신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공동발주, 최신기술 및

공법개발·도입, 보급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여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정 회장은 70년대 이미 공업진흥청 품질대학에서 일본 품질관리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어 선진외국의 학문을 접하기도 했으며 그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각 분야에서 강조해 왔다.

분기별 1회 개최될 운영위원회에서는 재활용 문제, 조달청 계약문제, 각 시도별 계약문제, 쓰레기봉투의 탄산칼슘 함유여부, 조합원사의 상호단합 결의, 협의회 활동홍보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되며 이달까지 20여명의 운영위원의 공장내의 제품과 시판되는 제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회원사들에게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쓰레기백 업체중 아직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더 많은데 향후 조달청 계약에 PL승인업체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의안을 심의하여 전 플라스틱조합 회원사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품질향상을 꾀할 것이다.

“이제 곧 직원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게 될 협의회는 순수회원의 회비와 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양의 0.2% 수수료로 운영될 것입니다”라는 정 회장은 앞으로 홍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홍보에 주력할 계획을 밝히고 어떤 표시품보다도 국내에서 인정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쇼핑백을 비롯하여 규제를 자체해 줄 것에 대한 대 정부 건의와 현재 구청에서 수거해 재

활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PL협의회와 플라스틱재활용협회와 공동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0년대에 이미 PVC파이프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면서 정치에도 몸을 담기도 한 정 사장은 지난 95년 본격적으로 사업에만 몰두하여 전문경영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했다.

경영인이 대외활동을 하다보니 회사에 소홀해지기도 하는데 제임스는 종업원들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어 정사장이 업계를 위해 활동할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한 기업은 경영인이 욕심을 버리고 종업원들에게도 일한 만큼의 댓가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업원들도 내 회사라는 주인의식으로 일할때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기업과 정치 두 곳에 모두 욕심을 내다보니 둘중 어느것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정 회장은 앞으로 작은 기업을 성실히 운영해 경영인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플라스틱조합원사내 쓰레기봉투 제조업체를 100%승인업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재임기간인 3년동안 업계를 주도해 나갈 제임스케미칼 정무신 사장은 현재 부인과 슬하에 2남을 둔 가정의 가장이며 시원하게 생긴 그 외모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아도 될 듯 싶다. ☐

이선하기자